



도하 아시안게임 이모저모



3일 오후(한국시간) 카타르 도하 알 사드 스포츠클럽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세팍타크로 남자 단체전 경기에서 한국의 한 선수가 태국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다. /연합뉴스

‘무릎 부상’ 양태영, 금메달 꿈 접어

내일 주특기 평행봉 출전 포기

○한국 체조의 간판스타 양태영(26·포스코건설)이 무릎 부상으로 끝내 금메달의 꿈을 접었다. 지난 2일 아스파이어홀에서 벌어진 남자 단체전에서 철봉 연기 도중 손이 미끄러지며 착지 때 왼쪽 무릎을 다친 양태영은 개인 종목별 결승이 벌어지는 6일 주특기인 평행봉에서 금메달에 도전할 예정이었으나 부상이 악화해 출전을 포기했다. 윤창선 대표팀 감독은 4일 “전날 인근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했는데 선수 보호 차원에서 이번 대회에는 더 이상 출전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중국 女力士 천안칭 3종목 세계新

○중국 천안칭(27)이 도하아시안게임 여자 역도에서 세 종목의 세계신기록을 갈아치웠다. 천안칭은 3일 도하 알-다나 벵퀴트홀에서 열린 대회 여자부 56kg급 결승에서 인상 111kg, 용상 140kg, 합계 251kg을 들어올려 3개 종목 모두 세계신기록을 세웠다. 종전 기록은 인상 110kg, 용상 139kg, 합계 241kg. 천안칭은 인상과 용상, 합계에서 태국의 완디 카메이임(합계 224kg)을 크게 따돌리고 우승,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KOC 금메달 선수·임원에 1천달러

○대한올림픽위원회(KOC)는 제15회 도하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와 임원에게 1천달러의 격려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2명이 출전하는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에게는 600달러씩, 단체전 금메달에는 500달러씩이 지급된다. 은메달 격려금은 개인과 임원에 500달러, 2인 경기와 단체 300달러, 동메달은 개인, 임원 300달러, 2인 경기와 단체 200달러이다.

北, 금기대 종목 침묵에 애태워

○제15회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이 대회 초반 기대했던 메달 박스에서 금맥이 터지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다. 북한의 목표는 금메달 10개를 포함해 총 50개 내외의 메달을 획득해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성적을 능가하는 것. 4년 전 부산 대회에서는 금메달 9개와 은메달 11개, 동메달 13개를 따 종합 9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번 대회에서 메달 유망종목인 여자탁구와 사격, 체조 등에서 부진한 성적을 보이며, 4일 현재 금메달 없이 은메달 3개와 동메달 4개로 종합 10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최혜정·김인경 ‘LPGA 셋별’

캘리포니아스쿨 13언더 공동 1위 내년 투어 전경기 출전권 획득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의 ‘코리언 파워’에 새로운 강자가 등장했다. 18세 여고생 김인경(한영외고)과 2년 동안 2부투어에서 눈물을 흘렸던 최혜정(22)은 4일 미국 플로리다주 데이тона비치의 LPGA 인터내셔널골프장(파72)에서 막을 내린 LPGA 투어 캘리포니아스쿨에서 5라운드 합계 13언더파 347타로 나란히 공동 1위에 올랐다. 최혜정은 최종 라운드에서 5언더파 67타를 때려 6타나 앞서 있던 김인경을 따라 잡고 수석 합격의 영예를 나눴고 김인경은 1오버파 73타를 쳤지만 1위를 거뜬히 차지했다. 한국 선수가 LPGA 캘리포니아스쿨에서 1위로 합격한 것은 1997년 박세리(29·CJ) 이후 9년만이다. 김인경이 아마추어 신분이라 우승자에게 주는 상금 6천달러는 최혜정이 독차지했다. 재미교포 엔젤라 박(18)도 1타를 잃었지만 5라운드 합계 5언더파 355타로 공동 5위가 돼 내년 LPGA 투어에 합류하게 됐고 작년까지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오지영(18)도 합계 3언더파 357타(9위)의 성적으로 투어 카드를 손에 넣었다. 재미교포 아이린 조(26)는 2언더파 358타로 공동 11위를 차지하면서 LPGA 투어에 진출했고, 작년에 LPGA 투어에서 성적 부진으로 투어카드를 잃어 이번에 다시 응시한 조아람(21)도 1언더파 359타(공동12위)에 올라 빅리그에 복귀했다. 그러나 당초 수석 합격 후보자로 기대를 모았던 제인 박(19)과 민나(18), 박진영(20) 등은 공동 18위(1오버파 361타)에 그쳐 상위 15명에게만 주어지는 전 경기 출전권 획득에 실패해 조건부 출전권에 만족해야 했다.



〈최혜정〉 〈김인경〉

한편 김인경, 최혜정, 오지영, 조아람, 아이린 조 등 5명이 캘리포니아스쿨에 합격함에 따라 내년 LPGA 투어에는 이미 전 경기 출전권을 갖고 있는 28명에 퓨처스투어를 통해 필드를 받은 김승희(18·대원외고), 박민비(18)를 포함해 무려 35명의 한국인 또는 한국계 선수가 전 경기 출전권을 갖고 필드를 누리게 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박지성 ‘올해의 선수’ 국내 축구팬 선정

박지성(25·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 국내 축구팬들이 뽑은 ‘2006 한국 축구 올해의 선수’로 선정됐다. 박지성(25·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 국내 축구팬들이 뽑은 ‘2006 한국 축구 올해의 선수’로 선정됐다. 박지성(25·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 국내 축구팬들이 뽑은 ‘2006 한국 축구 올해의 선수’로 선정됐다. 박지성(25·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 국내 축구팬들이 뽑은 ‘2006 한국 축구 올해의 선수’로 선정됐다.

제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5천465명 중 42.5%에 해당하는 2천321명이 박지성을 선택했다고 4일 밝혔다. 박지성에 이어 설기현(27·레임)이 1천 759명의 표를 얻어 2위에 올랐고, 전북 현대의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끈 최강희 감독이 9.3%의 지지로 김남일(3.8%)을 앞섰다.

안현수 쇼트트랙 월드컵 2관왕

안현수(한국체대)가 2006~2007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3차 대회에서 2관왕에 올랐다. 안현수는 4일 캐나다 새거네이에서 펼쳐진 대회 마지막 날 남자 1,000m 결승에서 1분28초815로 결승선을 통과해 이호석(경희대·1분28초850)을 0.035초 차로 제치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3위는 1분30초534의 김병준(광문고). 안현수는 이어 열린 남자 5,000m 계주에 송경택, 김현곤(이상 강릉시청), 김병준 등과 함께 나서 6분53초897로 중국(6분54초 312)을 밀어내고 금메달을 추가해 대회 2관왕을 차지했다. 여자부에서는 변천사(한국체대)가 여자 1,000m 결승에서 캐나다의 칼리나 로베르지(1분33초569)와 막판까지 접전을 펼쳤지만 0.01초 뒤지는 1분33초59로 은메달을 따냈다. 변천사와 함께 결승에 올랐던 진선유(1분33초644)는 동메달. 이밖에 여자 대표팀은 3,000m 계주 결승에서 중국(4분14초493)에 0.08초 밀리는 4분14초573으로 은메달을 따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5일(화) ▲도하 아시안게임 여자농구 2차예선(한국-타이완)(14 : 50·KBS2) ▲프로농구(LG-동부)(18 : 50·Xports, SBS스포츠) 6일(수) ▲도하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2차예선(한국-바레인)(01 : 35·KBS2) ▲06/07 UEFA 챔피언스리그 32강 6차전(AS로마-발렌시아)(04 : 30·MBC ESPN)

Advertisement for a real estate agency. Headline: '히히... 밖으로 나도는 남편이 일 치르고, 수표 2장 받아오네?' (Hehe... the husband who runs away, finishes work, and brings back two checks?). Includes a phone number 060-700-3658 and a photo of a family.

Advertisement for a Beko electric heater. Headline: '30만원대 히터가 무릎 꿇었다! 독일형 베커 벽난로형 히터!' (A 300,000 won heater has knelt! German-style Beko fireplace heater!). Price: 99,000 won. Includes an image of the heater.